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성 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Factors Affecting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Poverty

Lee, Sungeun[†]

Dep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ABSTRACT

Elderly people living in poverty are one of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 groups who are at risk of experiencing social exclusion. Social participation is an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 to active aging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older adults living in pover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ocial participation of the poor elderly. Data from the second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was used for the analyses and 1,346 poor elderly aged over 65 were analyzed. The findings showed that age, education, health status, a level of depression, financial stress, and economic activity were associated with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poverty.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specific needs of the older adults living in poverty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services and programs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poor elderly.

Key words: elderly living in poverty, social participation, determinants of social participation

I. 서론

노년기의 활동은 노인의 기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적극적 노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Levasseur et al. 2010).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노년기에도 다양한 역할의 유지와 관계형성, 적극적 활동 등을 통해 노화로 인한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

음을 주장하고 있다(Hooyman & Kiyak 2008). Rowe & Kahn(1997)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제시하며 질병 및 질병과 관련된 장애의 부재, 인지능력 및 신체적 능력의 유지, 그리고 삶의 적극적 참여가 결합되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적극적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Rowe & Kahn (1999)은 대인관계와 생산적 활동에 주목하여 타 인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 정보의 교환, 정서적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 2013년 8월 7일 심사일: 2013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16일

[†]Corresponding Author: Lee, Sungeun Tel: 82-51-510-1019

e-mail: lees@pusa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지지, 직접적 지원, 그리고 금전적 보상여부와 관계없는 사회적 가치의 창조를 적극적 참여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WHO(2002)는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참여를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고령화 시대의 정책구성에 있어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사회참여가 가져오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에 대해 밝히고 있다. 즉 사회참여는 노인의 우울증의 감소(Kang & Kim 2011b), 자아존중감의 향상(Kim & Choi 2011), 자살생각의 감소(Lee 2012), 인지기능의 향상(Hwang & Kwon 2009), 신체기능의 증진(Park & Lee 2006) 및 삶의 질 향상(Ju 2011)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노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회참여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참여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도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저소득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 노인은 노화와 빈곤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중된 경제적,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Hirsch(2006)는 개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빈곤을 제시한 바 있다. 더욱이 노인의 빈곤은 장기화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Ku 2005), 이러한 장기적 빈곤은 자존감, 자기통제력, 대처전략 등을 소실하게 만듦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될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Walker 1995; Deguara 2008).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은 친목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활동에 비교적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2012), 빈곤할수록 사회활동 참여율도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저소득 노인의 경우 사회참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Kim & Park 2007; Kang & Kim 2011a).

저소득 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생활의 다양

한 영역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질병, 건강의 약화, 일상생활 능력의 감퇴,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등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과 더불어 빈곤이라는 어려움이 가중됨으로 인해 일반노인에 비해 더욱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저소득노인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고(Kim 2007; Park 2012), 문제음주 성향이 높으며(Gweon 2009), 자아존중감이 낮고(Gweon 2009),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Gweon 2009; Park 2012)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은 사회적 지지망에 있어서도 취약성을 보여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 Park 2007).

이와 같이 저소득 노인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일반노인에 비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더욱 중대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빈곤에 따른 수치심과 낙인, 위축감 등은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를 더욱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생애 전반에 걸쳐 차별경험, 무력감, 낮은 자존감 등이 누적되어 내재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타인과의 교류나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적극성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Lee & Jeon(2009)의 연구는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노인일수록 사회참여 정도가 낮아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참여는 저소득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Chang(2009)은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빈곤노인은 빈곤과 노화라는 고달픈 삶 가운데 종교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삶의 끈을 지켜주는 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활동의 참여는 빈곤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Lee 2009b; Cho 2010), 사회활동 참여가 저소득 노인의 심리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빈곤계층에 있어 사회적 참여는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상호 물질적 도움을 통해 빈곤완화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Afridi 2011)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OECD 2008)로 인해 저소득 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저소득 노인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의 원인이나 소득 보장 방안 등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 노인의 삶에 접근함에 있어 물질적 자원의 결핍에 대한 보장이라는 다소 제한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적극적 노년의 관점에서 저소득 노인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한 역할의 획득 및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동안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일반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된 것들이 대부분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을 포함한 일반노인과 저소득 노인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적 맥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연구에 의해서는 사회참여와 관련된 저소득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일부 연구들이 사회참여가 저소득 노인의 심리사회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으나 저소득 노인의 어떠한 특성들이 사회참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찾아보기 어렵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의 유형 중 하나인 여가활동에 관련된 연구는 소수 존재하나(Kim 1999; Lee 2003; Park 2003; Lee 2004; Lee 2007),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나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고 있어 저소득 노인의 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방안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저소득 노인과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사회참여, 지역사회참여, 사회적 지지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Levasseur et al. 2010). 연구에 따라 사회참여에 경제활동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Lee 2009a; Ju 2011), 일반적으로 사회참여는 여가활동, 자원봉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활동 및 가사활동을 제외한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이나 집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Wright 1990). WHO(2007)는 여가, 문화, 사교, 교육, 영적활동에의 참여로 사회참여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참여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빈곤은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Hirsch 2006). 빈곤의 가장 큰 영향 가운데 하나는 빈곤한 당사자를 사회적 참여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Hirsch 2006). 저소득 노인의 경우 사회참여에 소요되는 자원의 결핍 뿐 아니라 사회참여시 수반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낙인 의식도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차별은 사회적 관계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노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Kwon & Shon 2010). Kwon & Shon(2010)의 연구는 노인에 대한 차별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주관적 빈곤감이 클수록 노인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Bae et al. 2006) 이러한 측면에서 저

소득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차별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이는 사회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통합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상실하게 하며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이 저해됨으로 인해 빈곤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수 있다.

저소득 노인은 경제적 궁핍과 이로 인한 가족해체 등으로 외로움,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가 가중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생활의 영역에서도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Chang(2009)의 질적연구에 의하면 빈곤노인은 친밀한 가족관계의 부재로 외로움을 많이 겪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Back(2006)의 연구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이혼, 재혼 등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지원체계가 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Oh(2009)의 연구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가족, 친구, 이웃과의 네트워크 수준이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노화와 빈곤이라는 이중적 취약성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적,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를 고려할 때 사회참여는 일반노인에 비해 저소득 노인의 경우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 노인을 구체적 대상으로 사회참여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나 저소득 노인에 관한 소수의 연구들은 사회참여가 저소득 노인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긍정적 역할을 함을 제시하고 있다. Lee(2009b)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빈곤노인의 자기개발활동, 사회문화활동, 가족중심활동, 고독무위해소활동이 이들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Cho(2010)의 연구는 빈곤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낮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으며 Kim & Park(2007)의 연구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노인의 경우 사회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측면에의 영향 외에도 사

회참여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은 비공식적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Afridi 2011)는 점에서 저소득 노인의 빈곤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회참여는 빈곤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경험들을 완충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이 삶에 보다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 노인의 어떠한 특성들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참여에서 배제되기 쉬운 고위험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개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사회참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을 사회참여의 설명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상태와 같은 신체적, 기능적 특성 및 재정적 상황을 포함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거주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성 및 가족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 요인 등을 포함한다.

저소득 노인을 구체적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Jeon 2003; Choi 2008), 경로당과 같은 특정 유형의 사회활동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Lee 2009a). 성별의 경우 사회참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노인일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종교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성일 경우 노인정과 같은 친목모임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Mo 1997). 교육수준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Jeon 2003; Choi 2008), 사회참여의 유형을 구분한 경우 자원

봉사형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Lee 2009a). 노인의 건강상태도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인식대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참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eon 2003; Lee 2009a). 이 외에도 심리적 요인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Choi 2008), 그리고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Jeon 2003) 사회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재정적 상황도 주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만족이 클수록 사회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Jeon 2003),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의 유형 중 노인정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Mo 1997).

환경적 요인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사회참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Lee (2009a)의 연구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경로당중심형 사회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Choi 2008),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클수록 사회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Jeon 2003), 가족지지가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In 200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에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주관적인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포함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거주지역과 가족관계 요인인 배우자 유무를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영향요인 외에 저소득 노인의 심리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신적 건강상태로 우울 정도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따라 각각의 변수들이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다양

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2차년도(2008) 자료를 사용하였다. 저소득 노인은 연구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Ahn 2003; Kim & Lee 2008),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노인(Oh 2009)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Choi 2005; Kim & Park 2007; Shon et al. 2010; Jung & Chung 2011) 보다 객관적 지표인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빈곤의 기준으로 가구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이용되나 본 연구는 Kim & Park(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60% 선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인 13.5%의 3배 이상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08). 이에 따라 연구자료의 65세 이상 노인 4,040명의 가구균등화 중위소득의 60%인 424.26만원 이하인 노인을 추출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총 1,34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사회참여

본 연구에서는 Wright(1990)의 정의에 따라 사회참여를 경제활동을 제외한 공식적, 비공식적 집단에의 참여로 정의하였다. 사회참여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과 여가 및 사회적 관계 형성, 개인적 가치의 추구하고 같은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사회활동이 그 목적 및 속성에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을 본 연구에서 설정된 사회참여의 개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참여는 사회적 활동에서의 배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참여의 유형별 참여가 아닌 전반적인 사회참여의 여부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령화연구패널의 사회활

동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단체 모임, 종교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 기타 모임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를 '1'로,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없을 경우를 '0'으로 부호화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개인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정도, 가구총소득,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포함되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거주지역과 배우자 유무가 포함되었다.

연령은 조사 응답 당시의 연령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0'과 중학교 졸업이상 '1'로 구분하였다. 건강상태는 본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를 의미하는데 '매우 좋음' 부터 '매우 나쁨'의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우울은 고령화패널 연구에서 사용된 CES-D-10(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점수를 이용하였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우울관련 증상의 경험 빈도를 이용해 산출된 점수로 0-10까지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총소득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가구총소득에 관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가구총소득은 분포의 이슈를 고려하여 회귀분석에서는 로그변환된 값이 사용되었다(Jeon & Kahng 2011).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0-100점으로 측정한 문항을 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경제활동참여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부호화하였다. 환경적 요인인 거주지역은 대도시 '1', 기타 '0'으로 구분하였고 배우자 유무는 혼인 중으로 응답한 경우를 배우자 있음 '1', 기타의 경우를 배우자 없음 '0'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에는 이혼, 사별/실종, 미혼, 별거가 포함된다.

3. 분석방법

먼저 연구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Tolerance)값을 이용해 점검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사회참여와 독립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연령의 경우 평균 74.5세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전체의 38.2%, 여성이 전체의 61.8%로 여성노인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76.5%로 나타나 저소득 노인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5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가 2.4로 나타나 연구대상자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의 경우 1-10의 범위에서 평균 5.2로 나타나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총소득의 경우 평균값은 29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태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0-100점의 범위에서 평균 62.2점으로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자의 14.0%가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86.0%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37.6%, 기타지역이 62.4%로 나타나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읍면부에 거주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62.3%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Mean (SD)	N (N=1,346)	%	
Independent variables	Age	74.5(6.3)			
	Gender	Male		514 38.2	
		Female		832 61.8	
	Education	Above middle school		316 23.5	
		Other		1,030 76.5	
	Personal factors	Subjective health status	2.4(.9)		
		Depression	5.2(3.0)		
		Household income	294.2(203.6)		
		Financial stress	62.2(21.5)		
	Economic activity	Yes		188 14.0	
No			1,158 86.0		
Environmental factors	Region	Metropolitan	506 37.6		
		Other	840 62.4		
	Marital status	Married	838 62.3		
		Other	508 37.7		
Dependent variable	Social participation	Yes	763 56.7		
		No	583 43.3		

종속변수인 사회참여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56.7%가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단체 모임, 종교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 모임, 기타 모임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square=129.17, $p<.0001$), 모형의 설명력은 12.3% 수준으로 나타났다(Nagelkerke $R^2=.123$).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정도,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가능성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의 증가는 신체적 건강상태 및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며 이로 인한 체력의 약화와 이동성의 제한 등은 사회참여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고령으로 갈수록 주변의 친구 등 동년배의 사회관계망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되므로 사회참여의 연결통로가 더욱 빈약해질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노인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로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위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Lee & Jeon 2009), 자원의 상대적 부족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참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사회참여에는 신체적 요인이 중요한 촉진 또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인이 판단하는 건강상태는 독립성 및 자기통제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스스로

Table 2. Factors affecting social participation of the poor elderly

		Variables	B	Exp(B)	
Independent variables	Personal factors	Age	-.0486	.953***	
		Gender(1=male)	-.1957	.822	
		Education(1=above middle school)	.3886	1.475*	
		Subjective health status	.3496	1.419***	
		Depression	-.0537	.948*	
		Household income	.0437	1.045	
		Financial stress	-.0086	.991**	
		Economic activity	-.6157	.540***	
		Environmental factors	Region(1=metropolitan)	.1177	1.125
			Marital status(1=married)	-.1921	.825
Goodness of fit		X ² =129.17, p<.0001			
Nagelkerke R ²		.123			

*p<.05, **p<.01, ***p<.001

사회참여를 주저하게 되거나 주변인들에 의해 사회참여를 권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다. 정신적 건강의 측면인 우울도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와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참여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자존감의 저하, 위축감, 수치심 등으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사회참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가구총소득 자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상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사회참여를 저해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활동 여부도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에 참가할 경우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기대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로 저소득 노인의 경제활동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의 경우 거주지역이나 배우자 유무는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 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정도,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활동참여 여부가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에 있어서 저소득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경우 사회참여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다양한 사회관계망 형성의 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사회참여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와 사회참여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Lee & Jeon 2009;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IHASA 2012).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참여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의 경제활동이 소일이나 자아실현 등의 이유보다는 생계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활동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시간적, 정신적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도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재정적 원천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저소득 노인의 경제활동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득보장으로서의 측면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정적 상황에 있어서 가구소득 자체는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이라는 객관적 상황보다 본인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재정상황에 대한 압박감은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리라 예상할 수 있다. Ahn(2003)의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 노인의 지출규모는 주거관리비와 식생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문화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사회참여의 형태가 경로당 이용 등 친목모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문화나 여가, 스포츠 등에 참여하는 비율은 약 1%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활동 등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회의 상징적 문화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며 사회적 배제의 주요한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Bae et al. 2006). 따라서 저소득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연, 영화관람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및 여행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 및 여행바우처 사업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업에 있어서도 노인들의 경우 신청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ungcheong Today 2012).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바우처 사업 등을 저소득 노인의 특성과 욕구, 기능 등을 고려해 보다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며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저소득 노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 요구된다.

셋째, 우울정도가 사회참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 노인의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수치심이나 낙인의식, 위축감 등 심리적 측면이 이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책감, 고립 등은 저소득 노인의 무력감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Cox 1989). 따라서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무력감을 완화하고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서적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Lee & Jun(2012)의 연구는 가정방문을 통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저소득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또는 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노인의 심리적 역량강화가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망의 형성도 역량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저소득 노인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노인들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 자조적 모임의 생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를 보다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상태와 같이 노인의 신체적 상태와 관련된 요인들은 여가활동과 같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Hur 2002; An 2004; Lee 2008). 노인의 빈곤은 규칙적 운동이나 금연 등의 건강행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건강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Won 2011). 더욱이 저소득 노인의 경우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미약할 수 있으므로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만성질환에 대한 적절한 질환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나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교육 및 지

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교적 대표성을 가지는 전국적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참여에서 배제되기 쉬운 고위험 집단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저소득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사회참여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횡단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한계를 가진다 할 수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변인과 시점을 고려한 연구 및 일반노인의 사회참여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fridi A(2011) Social networks: their role in addressing poverty. JRF programme paper: poverty and ethnicity

Ahn J(2003) Daily life and needs of the poor elderly women: focused on Sangdong area in Mokpo city. Korean J Res Gerontol 12, 85-110

An SM(2004)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type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n the elderly.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ae JY, Rho BI, Kwak HK, Yoo HS(2006) An exploratory study on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J Welf Aged 33, 7-28

Baek HY(2006)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overty among the poor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Korean J Soc Welf Stud 31, 5-39

Chang KE(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of the poor elderly. Korean J Soc Welf 61(4), 355-380

Cho HS(2010)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depression of the poor elderly. Master's Thesis, Woosong University

Choi KI(2008) A study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Focused on Wonju.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Choi OG(2005)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to decent job: focused on paid jobs. Q. J Labor Policy 5(1), 1-42

Chungcheong Today (2012) Elderly-difficulties with application for culture voucher program.(2012. 10.9.)

Cox EO(1989) Empowerment of the low income elderly through group work. Soc Work Groups 11(4), 111-125

Deguarra A(2008) The face of the poor: a sociological review of poverty in contemporary Europe and Malta. In G. Xuereb (Ed) The flight against poverty. Malta: European Documentation and Research Centre

Gweon HS(2009) Effects of problem drinking of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depression and self-esteem: a latent means analysis application between poor and non-poor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9(4), 1521-1538

Hirsch D(2006) Where poverty intersects with social exclusion, Joseph Rowntree Foundation

Hooyman N, Kiyak A(2008)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8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Hur JS(2002) Determinants of leisure activities among urban elderly persons. J Korean Gerontol Soc 22(2), 227-247

Hwang JN, Kwon SM(2009) The relation between th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and cognitive function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population. J Korean Gerontol Soc 29(3), 971-986

In JM(2006) A study on the factors of community participations of the aged: focused on incheon.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Jeon JY(2003) A study of relevant factors affecting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Jeon HS, Kahng SK(2011) The effect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presence of chronic illness. J Korean Gerontol Soc 31(4), 1247-1263

Ju, KH(2011) Elder's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by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J Community Welf 39, 231-264

Jung SY, Chung HS(2011) The effec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service use and economic hardship on the family conflicts among low-income families. Korean J Soc Welf Stud 42(1), 5-29

Kang HJ, Kim YJ(2011a) Predictive factors of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J Korea Contents Assoc 11(9), 323-334

Kang SK, Kim HJ(2011b) A study of impact of

- social activities and religion/spirituality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Korean J Popul Stud* 34(2), 163-190
- Kim DB, Park EY(2007)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females' productive activ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J Welf Aged* 38, 339-358
- Kim HM(1999) A study on the recreational activity of the low income elderly.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Kim JH, Won SJ(2011) The impact of late-life poverty on self-rated health: a mediated moderation model of health behaviors and social support. *J Korean Gerontol Soc* 31(3), 463-478
- Kim JY, Lee JM (2008) A study on the factor giving effect to self-esteem of low-income old woman. *J Community Welf* 27, 259-280
- Kim NH, Choi SI(2011) Effects of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women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J Korea Contents Assoc* 11, 241-252
- Kim OK(2007)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depression of the poverty elderly using in-home services. Doctoral Thesis, Pyongtaek University
- Ku IH(2005) Poverty dynamics in Korea: poverty duration and its determinants, *Korean J Soc Welf* 57(2), 351-374
- Kwon JD, Shon ES(2010) The influences of self-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age discrimination upon the social participation among the elderly: a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 Welf Aged* 49, 81-106
- Lee GG(2008)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leisure activities: a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lderly leisure activity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Lee HH(2004)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low-income senior citizens' leisure: working with old people using the social welfare center at Dobong-gu.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Lee HY, Jeon GS(2009) The influence of positive thought about social capital on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Koreans. *J Korean Gerontol Soc* 29(3), 789-803
- Lee SH, Jun SS(2012) Effects of an empowerment program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for low-income elderly women living alone.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1(4), 311-320
- Lee JB(2003) The study about the leisure activity of low-income female senile citizen: focusing on the female senile citizen in Gwanakgu and Geumcheongu.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Lee JY(2007)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practical using leisure to low-income senior citizens in aging society.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MS(2012) Does the social activity of the elder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Soc Work* 40(3), 231-259
- Lee SC(2009a)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older persons. *Korean J Popul Stud* 32(1), 71-91
- Lee SH, Jun SS(2012) Effects of an empowerment program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for low-income elderly women living alone,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1(4), 311-320
- Lee YS(2009b) The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of the aged poor people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targeted for people assisted by the National Basic Life Guarantee benefits who are above 65 years ol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Levasseur M., Richard L, Gauvin L, Raymond E(2010) Inventory and analysis of definitions of social participation found in the aging literature: proposed taxonomy of social activities. *Soc Sci Med* 71(12), 2141-2149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2012) 2011 National survey on the life of Korean elderly. Korea
- Mo SH(1997) Determinants of social participation among the rural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17(1), 94-108
- OECD(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8) OECD Income-distribution database,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Table 5.3., p140
- Oh IG(2009) The impact of social network and hopelessness on suicide ideation among the low-income adults-focus on interaction effect of use of community welfare center service. *J Welf Aged* 44, 111-130
- Park KH, Lee YH(2006) Effect of social activities on physical functioning in community-dwelling older persons: examination of causal relationships. *J Korean Gerontol Soc* 26(2), 275-289
- Park MJ(2012)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support network types on life satisfaction comparison between the elderly living in poverty and the elderly not living in poverty. *Ment Health Soc Work* 40(1), 207-233
- Park S(2003) A study on the leisure of the senior who have low-income in city and the improving methods.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Seoul
- Rowe JW, Kahn RL(1997) Successful aging. *Gerontol* 37(4), 433-440
- Rowe JW, Kahn RL(1999) Successful aging. In K. Dychtwald (Ed.), *Healthy aging: Challenges and solutions* (pp 27-44). Gaithersburg, MD:Aspen

- Publishers, Inc
- Sohn SI, Shin YJ, Kim CY(2010)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poor. *Health Soc Welf Rev* 30(1), 92-110
- Walker R(1995) The dynamic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G. Room (Ed). *Beyond the threshold*. UK: Polity Press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Madrid, Spain)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http://www.who.int/ageing/publications/Global_age_friendly_cities_Guide_English.pdf
- Wright LK(1990) Mental health in older spouses: the dynamic interplay of resources, depression, quality of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social participation. *Issues Ment Health Nurs* 11(1), 49-70